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6.8(월) 11:00부터 보도 가능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 (02-2156-9750)	담 당 자	[금융위원회] 윤동욱 사무관 (02-2156-9671)
	[산업통상자원부] 김동주 과장 (044-203-4530)		[산업통상자원부] 김기열 사무관 (044-203-4534)
배 포 일	2015.6.5.(금)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2매

제 목 : “양적 확대” 에서 “질적 내실화” 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
-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 기술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은행) 신용대출·초기·우수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질적 평가 확대
 - (현장) 대출 소요기간 단축 및 기술신용대출 설명 의무화
 - (TCB) 평가품질 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분석결과 공개
 - (역량) 은행 자체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
-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ecosystem) 조성
 - (기술형 모험자본)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및 기술형 펀드 조성
 - (자본시장 연계) 기술 기반 p-CBO 발행 및 TCB평가 우수기업 상장특례 실시
 - (기타 영역) 저축은행·캐피탈 및 정부사업 활용 확대

I.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지난 4.13.부터 5.15.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를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
 - * (은행)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부산 / (TCB) 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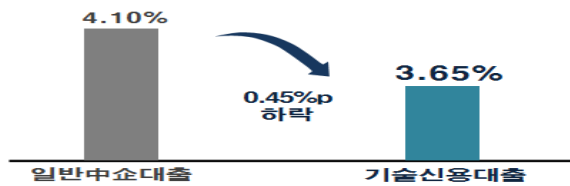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은 ‘14.4.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 면책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한 기업의 부실발생시 기업보유 지식 재산을 분리해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II.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실적 및 성과

-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10개월('14.7.~'15.4.) 동안 총 39,685건, 25.8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
 - * 기술력 양호 이상(T1~6) 기업에 전체 공급액의 94.5%(24.5조원)가 지원
-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5%p 낮은 금리로 4.4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

【 평균대출금리 】



【 평균대출금액 】



- 무담보 신용대출은 26.3%로 일반 중기대출(12.1%) 대비 2배 이상(잔액기준)
- 기술신용평가 실시건수의 42.9%가 TCB 등급이 신용등급 대비 상승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의 82.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

* 중기중앙회,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 (400개 기업 대상, '15.4.)

☞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정착 우수사례는 별첨자료 참조

2. 문제점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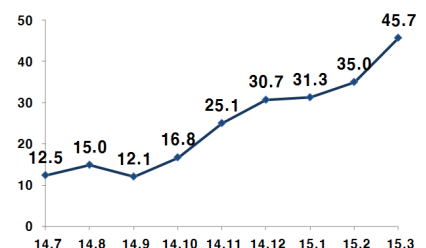
- ① (기술력 반영 미흡)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기술 연관성이 작은 대형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일부 발생

* 신규기업(24.2%) 및 우수 기술기업(13.1%)에 대한 지원도 보다 확대할 필요

- ② (현장불만 과다) TCB 평가기간 장기화 및 기술신용대출 외 투자자금 조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존재

* 중소기업 자금조달방식 선호도 :
대출 68.8%, 투자 13.3%, 종류 무관 18%
(4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 '14.12월)

【 TCB 평가 소요일수 】



- ③ (TCB 평가 신뢰성 부족) 평가서 내 오류 및 평가 일관성 부족 등으로 TCB 평가에 대한 은행의 신뢰가 아직 미흡

<사례> A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은 “시장성장률이 우수”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시장 성장성” 평가등급은 “C”등급 부여

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兩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 ①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 우수기술 · 초기기업” 지원 확대
- ②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 ③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 ④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해소

① “신용대출 · 우수기술 · 초기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 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개선

- (신용대출)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

* (현행) 신용대출 및 투자(15%) → (개선) 신용대출(15%) + 기술평가 기반 투자(10%)

** '15.4.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기보 보증가액 2.4조원(전체 25.8조원의 9.3%)

-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

* (우수기술 평가) 우수기술기업 차주수 비중 평가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가중치 부여)

** (초기기업 평가) 초기기업(창업 7년 이내, 연매출 100억원 이하) 차주수 비중 평가

②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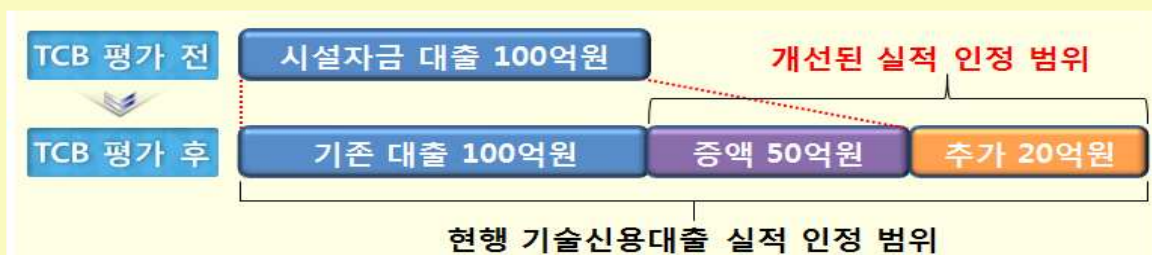
-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 개선

- (거래기업 단순 대환 배제)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예) A기업이 TCB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대출계좌 신설)한 경우

→ (현행) 최종 시설자금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의 합계인 170억원을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

→ (개선) TCB 평가에 따른 기존대출 증액분(시설 50억원)과 추가대출(운전 20억원)의 합계인 70억원만 인정



-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 제도화) 은행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 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 수립

<사례①> S은행 및 W은행은 심사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

<사례②> K은행은 「기술금융업무지침」을 자체 수립하여 본점 및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대출취급 절차를 체계화 및 일원화

③ “규모 확대” 에서 “기술력 반영”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심사시 보다 면밀하게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은행 평가체계 개선) TECH 평가 내 양(量)적 평가 비중을 축소 (40% → 30%)하고 정성평가(25% → 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 (축소) 총 대출규모, 전체 차주수 등 양적 지표
 - (확대) 신용대출, 기술기업 지원, 기술투자, 정성평가 등 질적 지표
 - (TCB 평가 대상 조정)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 평가 의무*를 폐지하여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
 - * 기술신용대출 도입 초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TCB 의무화를 통한 확산 도모
 - ** '15.4.기준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 6.0조원(전체 25.8조원의 23.3%)

④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이 기업의 신용 외에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함께 심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이 낮아짐
 - 지금까지 기술신용대출 연체율도 낮아* 은행 자체 일회성 기획감리 외에 정기적인 건전성 관리는 미실시
 - * 기술신용대출 시행 초기로서 '15.4월말 기준 연체율은 은행별 0.02~0.03% 수준
- 그러나,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
 - * (예) 주요 점검항목 : 기술평가등급 · 신용등급 · 기술등급별 취급 현황, 기술신용대출 상품 운영현황, 직무전결 준수 여부, 심사 적정성 등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 · 공유되어 내부 규정 등 제도개선과 연계되는 체계 구축

<사례> K은행은 '15년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감리결과를 CEO 등 경영진에 보고하고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 실시
- '1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기술신용대출 모니터링 실시 계획

2. (현장) 기업의 불편·불만 해소

①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 단축

②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

①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이 빨라집니다.

○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

- 질적 지원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시 既신청된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제도(우선평가 제도)를 도입

* 우선평가 신청시 15일 이내 평가 완료 및 결과 회신 실시

- 평가자료 수집에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어 기간 장기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혼선 및 지연을 방지

* (기술자료) 기술 상세정보, 기술개발 인프라, 기타 참고 기술자료 등

(기업정보) 기업 재무제표, 부가세자료, 법인·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② 은행과 TCB가 기술신용대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 기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은행 및 TCB의 기업 대상 설명을 제도화

- (은행 → 기업) 기술신용대출 취급 전에 일반 대출과 차이점, 현장 실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

* TCB가 현장실사에 대한 표준절차 매뉴얼을 작성 후 은행 배포

** 은행의 설명 의무화를 위해 대출 약정시 확인서명 실시

- (TCB → 기업) 평가 전 평가절차·필요자료·현장실사 시기 등을 안내하고 현장실사 후 해피콜을 통해 문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3. (TCB) 기술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 ① TCB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공개
- ② 기술신용등급 체계 및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 ③ 여신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실시

①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TCB 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설치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 구축
 - * TCB 평가서에 평가자 외에 검수자 이름을 함께 기재
- 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 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을 분석하고 은행 등 TCB 이용기관에 결과를 공개하여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유인 제공

② TCB 평가를 통해 정확한 기술력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TCB별로 상이한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대출현장에 있는 은행 심사역 및 기업 등의 이해도 제고
 - * 현재 기술신용등급 체계(AAA~D): (기보)14등급, (NICE)16등급, (KED)22등급
-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 설명력을 강화

③ 여신 성격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은행에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한 순수 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약식평가가 아닌 표준평가를 유도
- 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심층평가 제도)하는 제도를 도입
 - * 다수 평가자 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 현장실사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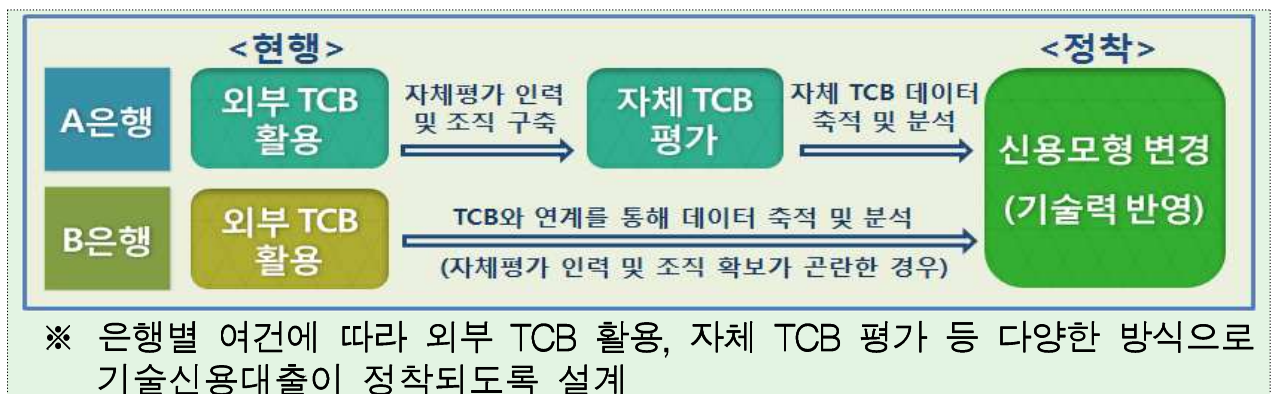
4. (역량) 기술신용대출 관련 역량 확충

- ① 전략적 역량 확보를 돕기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제공
- ② 인적 · 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

①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중
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어
 -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
- 금융위 · 은행권 · 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7월)
 - * 평가조직 · 전문인력 등 자체 평가 역량을 갖추는 대로 자체 기술신용평가 대출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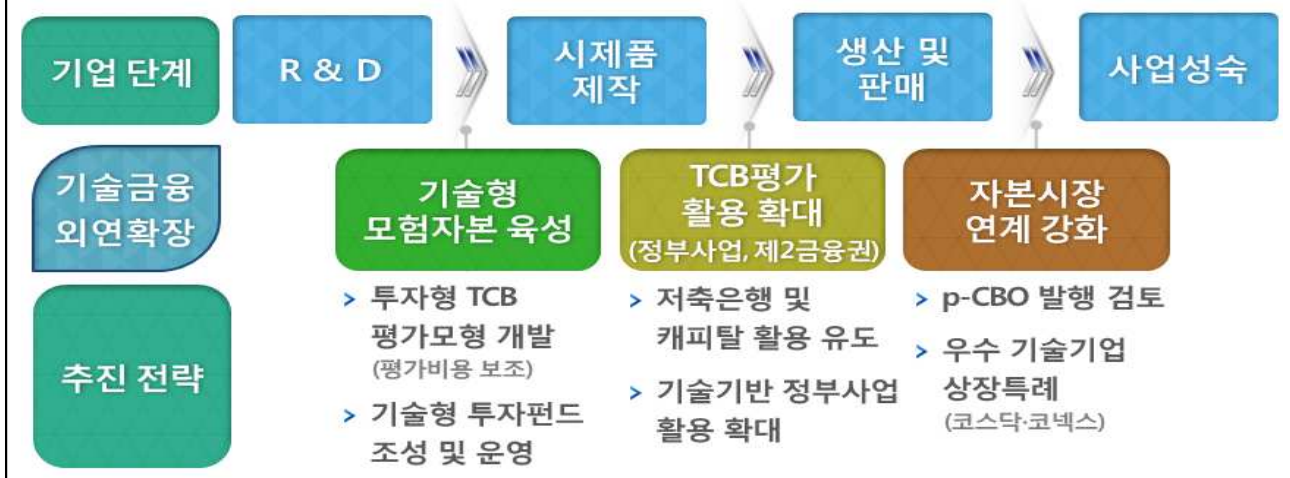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안) 】



② 효율적 역량 확충을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기술신용대출 정착의 핵심인 은행의 인적 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
 - (전문 교육과정)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인터넷교육(기본과정), 집합교육(심화과정), 금융기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 금융연수원 및 기술보증기금 내 과정 신설
 - (전문 자격증)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상기 교육과정과 연계
-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조력자로서 TDB의 지원기능 강화
 - (제품 → 기업) 제품 단위 기술정보 중심 DB체계를 기술신용대출 심사 · 평가에 활용이 용이한 기업 단위 기술정보 체계로 전면 개편

< 기본 방향 >



1.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 ① 엔젤·VC 대상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 ②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① 엔젤·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

-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 (기존 TCB) 예상 부도율 평가 vs. (투자형 TCB) 성장가능성 평가

②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됩니다.

-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에 마중물로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

*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투자하는 펀드

-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

* NPE(특허관리전문금융사, Non Practicing Entity) : 특허 등 IP의 매매·라이센싱·사업화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향후 IP 펀드 외에도 특허금융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 검토할 계획

2.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강화

- ① p-CBO 발행시 TCB 평가 반영
- ② TCB 우수기업 상장특례 (4.23. 기발표)

① p-CBO 발행시 TCB 평가를 반영합니다.

-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BO 발행시 기업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
 -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제고

② TCB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이 원활해집니다. (기발표)

-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절차 중 외부 평가기관 평가에 TCB 평가결과를 인정
- (코넥스) TCB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정자문계약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상장 제도 도입
 - ☞ 금융개혁회의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기관투자자 20% 이상 지분보유 및 특례상장 동의, 특례상장기업 별도 관리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3. TCB 평가 활용영역 확대

- ①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TCB평가 활용 유도
- ② 정부사업의 TCB평가 활용 확대

① 저축은행, 캐피탈도 TCB 평가를 이용합니다.

-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산은 온렌딩 이용시 TCB 평가 활용 유도, 평가 비용 감면 등을 통해 TCB 평가 활용 확대

② 정부사업의 TCB평가 활용도 확대됩니다.

- 기술 기반 정부사업에 대한 TCB 평가 활용을 확대하여 우수 기술 기업을 위한 우대 실시
- (조달) 정부조달 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시 TCB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
- (R&D) 정부R&D 사업자 선정시 높은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 저조로 결격인 경우에도 TCB 평가 우수 기업은 예외로 인정
- (기업인증) 벤처 인증을 위한 기술평가시 TCB 평가 결과 활용

IV. 기대 효과

◆ 은행권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됩니다.

- 기술신용대출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고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② '18년부터 중소기업 대출의 1/3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됩니다.

-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인 '18년에는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1/3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15.2월) : 319.2조원

③ '20년부터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됩니다.

- 이르면 '20년부터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기술력 심사를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

* 바젤II에 따라 은행 내부등급법 변경은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

④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로 기업단계별 기술금융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투자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V. 향후 계획

□ 상기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사항은 시기별로 순차 발표할 예정

* (6월) 기술금융 전문 교육과정 개설, (7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
(8월) TCB평가모형 및 체계 개선, (9월)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등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알리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

【참고】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개요

【별첨①】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세부 내용

【별첨②】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관련 Q&A

【별첨③】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정착 우수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제3차 금융개혁회의(5.18)에서 기술금융이 대출 이외에 투자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4차 회의(6.3)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① 기술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을 정함에 있어

-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엔젤·VC 등의 자율적인 심사에 맡기는 방안과 정책적으로 기술평가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 ⇒ 투자 영역의 체계적 기술평가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논의결과에 따라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등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금번 대책에 포함

②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의 바람직한 방식과 관련하여

- 엔젤·VC 등이 필요에 따라 TDB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에 더하여 투자형 TCB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 ⇒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시 현행 엔젤·VC 등의 자체 평가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체계적인 평가모형이 부족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 투자형 TCB 평가를 엔젤·VC와 협의를 통해 개발 및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 다만, 기술환경 급변과 엔젤·VC의 투자 심사의 자율성 등을 고려, 투자형 TCB 평가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사실상 강제하지는 않기로 결정

③ 최근 TCB의 과중한 평가부담으로 인한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라 TCB 업무를 출연연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있어

- ⇒ TCB는 현행과 같이 민간 위주로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는 제한하며 필요시 별도 자회사 형태는 인정하기로 함
- 다만, 그간 R&D 등으로 전문성이 축적된 출연연 등 공공기관은 TCB와 업무제휴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함

〈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

〈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

